2022년 08월 2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81편 1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70(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6장 1~13절(구약p.766)

> 1.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 2. 나의 분한을 달아 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 3.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럼으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 4.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 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 6.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 7.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 8.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 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 10. 그러할찌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11. 내가 무슨 기력이 있관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관대 오히려 참겠느냐
> 12.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 13.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 말씀선포 / 고난 당하는 자의 호소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뜻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처럼 마음과 마음으로 알아가며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마도 사람들마다의 처한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알지 못했던 세 친구는 지금의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지만, 오히려 고난 당하는 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려 주고,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욥의 호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깊은 내면을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의 심정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참된 위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난 속에 있는 욥의 심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1. 욥은 낙심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 본문 1~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엘리바스의 조언을 들은 후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깊이를 하소연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그로 인한 괴로운 심정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욥의 내면에는 고난이 가져온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소금 없이 싱거운 음식을 먹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불평 섞인 어조로 쏟아 냅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들을 쏟아 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이러한 불평에 대해 친구들의 이해와 공감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친구들이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부정적이고 격해진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에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억누르기 어렵고, 더 나아가 불평이나 원망으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고, 우리의 육체나 마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 쏟아 놓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듣는 것도 때론 우리 또한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호소를 무시함으로써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해의 말로, 참된 긍정의 말로 다가간다면, 고통 가운데 낙심하던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욥은 무력하여 우울합니다.

- 본문 8~9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지금 욥은 더 이상 자신에게 견딜힘이 남아 있지 않음을 한탄하며 우울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도, 영혼도 무력해져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는 엄청난 비극이 몰려왔을 때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이 끝나길 바란다고 하소연합니다. 본문에서 욥이 죽음을 바란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고, 참아 낼 만한 육신의 기력도, 마음도, 정신의 기운도 남지 않은 상태를 지금 욥은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그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고 욥의 믿음을 판단하고, 때로 믿음의 없는 듯한 모습에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놓은 사람들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하여 성도는 그들이 이러한 모습이나 탄식이,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고, 여호수아 1장 6~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믿음이 있는 자들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 고난 속에 그 마음이 요동치고,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온갖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도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원문은 이전의 개혁한글 성경이 더 정확히 번역되었는데, 개역한글에서 6~7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고 말씀하시며 인생은 흙으로 만든 육체요, 그 육체 안에 담고 있는 인성도,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약한 존재이기에 무릇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저 연약한 인생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불안과 불평, 무기력함과 우울한 그들의 마음이 생겨났을 수 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도록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이 무기력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도우려면, 성도는 그들의 곁에서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변에 고통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은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무력함을 가져옵니다. 자신에게 시련을 이길 힘이 없음을 발견하고 우울해 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짐을 져 줄 것을 바라십니다. 시련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자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93(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 폐 회 / 주기도문